



인터뷰 시리즈 #08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 에드윈 풀너

(Dr. Edwin Feulner)와의 인터뷰

 자유기업원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 에드윈 풀너와의 인터뷰

---

공병호(자유기업센터 소장)

## 에드윈 풀너와의 인터뷰

이 자료는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1997년에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풀너(Edwin Feulner)를 만나 인터뷰한 것 입니다.

**질문** 박사님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풀너** 제가 미리 예견했듯이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C+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있는 개혁에 대한 정치적 압력, 복잡한 내부적 구조와 좋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볼 때 C+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가진 개혁에 대한 의지나 갈망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들 국가들의 일반적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풀너** 글썄요,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문제는 어느 나라도 진정으로 ‘법의 지배’<sup>rule of law</sup> 원칙을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과 정실 자본주의<sup>情實資本主義: crony capitalism</sup>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의 지배 원칙 아래에서는 투명성이 보장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투명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적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법이 어떤 것이든, 경제 재건을 위한 기틀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 한국에서, 저는 시장에 행사하는 정치인들의 거대한 권력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위해 미국에서 배워야 할 점은 어떤 것입니까?

**풀너** 경제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힘은 보통 사람들, 기업가, 경영인, 자본가들의 손에 달려 있어야 하며 선출된 정치인이나 임명직 관료들의 정치적 권력과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지게 되면 권력 집중이 너무 과도하게 됩니다. 권력집중의 가능성을 줄여야만 개인과 경제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어집니다.

**질문** 정실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너** 글썄요, 저는 자본주의자들인 친구(crony: 친구라는 뜻이 있음; 역주)들이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정실자본주의란 개인들이 가장 현명한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친분관계, 편파적인 선호, 뇌물, 지역주의 또는 종교 등과 같은 것에 근거하여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감각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장 효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나 전체 국가 경제, 그리고 국제 경제 전체가 자기가 가진 최대의 가능성을 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실자본주의는 실질경제를 변화시켜 조악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왜곡을 가져옵니다. 자본주의를 왜곡하며 자본주의에 오명을 뒤집어씁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일련의 원칙과 규칙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효율적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정치가나 관료들이 이와 다른 방향으로 몰아가거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인종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한다면 자본주의는 원래 그래야 하는 것과 달리 효율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실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왜곡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결정을 합리적인 경제적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공적인 요소에 기초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실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정실자본주의를 탈피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아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너** 첫째로,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법의 지배 원칙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법의 지배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 투명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부관료들이 일부 집단을 편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야 진정한 자본주의와 진정한 시장경제제도를 향한 길고 먼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장경제제도가 마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진정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란 사고 파는 사람들의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발적 교환이란 어떤 회사가 새로운 경영노선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커다란 일이 될 수도 있고 동네 가게에 가서 신문을 사는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300원 정도를 포기하고 그들은 당신에게 신문을 줍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교환입니다. 이것이 자유시장이 무엇인가를 모두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외부적인 장애물이 있거나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가 반드시 이 길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대거나 반드시 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불공정한 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어떤 외국 자본도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할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출발은 다르겠지만 모두 이러한 같은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라면, 일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헤리티지재단이 밝힌 공식적 입장 외에도, IMF의 전략에 반대하는 의견이 미국 납세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몇 주일 전 박사님은 외국 언론에 IMF 기금의 오용에 관한 기사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풀너** 저는 단지 미국의 납세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IMF 전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의 전략이 한국 국민,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 국민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도덕적 해이<sup>Moral Hazard</sup>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IMF 기금의 사용은 이곳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이 부수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험요소를 없애줍니다. 그 투자는 결국 갚아야 할 주권국가의 부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납세자와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프랑크푸르트, 뉴욕 등의 대형 은행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떠안아야 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IMF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자틀<sup>cookie cutter</sup>’라고 부르는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자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자틀 접근방법이란 하나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컴퓨터에 대해 ‘태국을 꺼내고 한국을 넣어라’라고 말하고, 똑같은 방법을 한국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꺼내고 러시아를 넣어라’라고 말하고 똑같은 방법을 러시아에도 적용합니다. 이것이 과자틀 접근방법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만 어느 곳에서

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국가 체제에서 경제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은 제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법의 지배와 투명성, 평등한 대우라는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비슷한 조건의 해결책을 부과하고 이를 성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니, 러시아 당국은 2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러시아는 루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러시아 당국은 평가절하를 단행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루블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받았던 50억 달러의 IMF 자금을 날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은 IMF의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질문** 예, 이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IMF 프로그램이 없었다 해도 러시아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풀너** 러시아는 이미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의회와 대통령, 수상이 모두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들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성과 IMF, 세계은행, 유럽 은행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러시아에 쏟아 부어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러시아가 결국 다다를 곳은 어디일까요?

**풀너** 제가 만약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저는 조지 소로스보다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강조했던 법의 지배와 독단성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에는 지금 불행하게도, 법의 지배 원칙과 함께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조직범죄는 전체사회에 위협을 끼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조직에 의해 법률제도가 잠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정부상태이고 사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국민들이 일어나 마피아들을 몰아내고 다시 시작하던가, 아니면 마피아 조직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고 외부자본을 고갈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러시아에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러시아는 2개 대륙에 걸쳐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 모두 중요한 나라입니다.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가까운 이웃이고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와 열심히 싸워야 합

니다. 러시아에는 경제적 의미의 법의 지배 원칙 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할 수 없다고 말하는 형법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 쓰여진 형법만이 아니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경찰당국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지적했듯이, 전통적인 자유주의자이며 미국인의 감각으로 볼 때 보수주의자입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기능의 하나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될 수는 없었지만, 당신이 만약 모스크바 중심가에 호텔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기업가라면, 당신은 개인적 안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미국 기업가의 경우 그의 호텔 로비에서 러시아 마피아에 의해 총격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경찰은 범행자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불법이고 그들이 체포되면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명이 진보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합법적인 역할인 국내 경찰에 의한 국민 보호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규정한 상법<sup>商法</sup>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제도는 매우 원시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의회 내에는 이전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금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오래된 공산주의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수로서 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이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박사님은 러시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현실성을 알고 있는 지성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풀너** 어디에서요? 러시아에서 말입니까? 예, 매우 적습니다. 우리 헤리티지재단의 모스크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인입니다. 그는 러시아 전역에 방송되는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을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큰 희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스부르크시에 갔을 때 보니,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움직이지도,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바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때로 진척이 매우 느리고, 때로 멈추기도 하지만, 거꾸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약간 앞으로 나아가더니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시아와 특히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인 일본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무엇이고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엔화의 평가절하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풀너** 엔화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달러에 100엔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40엔을 넘어 142, 143엔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아시아 국가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수출 경쟁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경쟁력이 없던 부문에서 갑자기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모두 자국의 내부경제 문제가 발생된 바로 그 시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본이 부동산 거품과 금융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어쩔 수 없이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국가들이 자본 제공자와 좋은 고객으로 의존해왔던 일본 경제의 지도적 기능이 더 이상 수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놀룰루를 찾는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나 일본의 동남아시아국가 제품 구매는 예전 같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은 정상상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본에 관해 가졌던 기본적 관심은 일본의 문제가 깊고 심각하다는 것과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의 거품이 발생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차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그것은 순환주기를 가집니다. 일본인들은 매우 검소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은행권은 국민들에게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수익도 돌려주지 않았습니

다. 제 일본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평균적인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본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개인적 선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불과 2,000달러 정도의 작은 돈만 있어도 매일 아침 신문을 펴고 '나는 파이델리티 마젤란 기금은 싫어, 차라리 브랜디와인이나 다른 것이 좋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팔고 다른 것을 살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 놓고 1%나 0.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오다가 거품이 꺼지게 되자 전체 경제가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솔직히 말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일부 은행들은 파산되어야 하고 합병되어야 하며 증권회사들은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테크 환경에서는 기업간, 산업간 이동이 있어야 하며 자본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유동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일본인들에게는 모두 새로운 개념입니다. 저는 일본인들을 너무 일반화하여 말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일본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대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돈은 국민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정상궤도에 되돌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도로를 더 만들고 더 많은 공공사업이나 정부가 결정한 일을 하는 대신에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합시다. 정부가 하는 일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는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정치제도와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치가들에게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껏 해온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미국에서는 일본경제야말로 세계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쓴 수십 가지 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모임에서 조소를 받으며 쫓겨날 것입니다.

**질문** 몇 주 전, 케이토<sup>Cato</sup> 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전문가인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본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박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풀너** 글썄요, 세계경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한국의 어느 정치가가 사용한 말에 의

하면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조정되고 있고 그 조정과정은 매일 서로 다른 개인들과 서로 다른 기관들에 의해 백만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을 거쳐 만 들어집니다. 만약 일본이 투자능력을 잃더라도 세계경제는 금방 조정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만약 매력적인 기회가 있다면 금방 느슨한 곳을 메워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가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온 자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일단의 대만 기업가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기회를 찾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들의 대리인이 있을 것입니다. 자본은 움직입니다. 자본은 최대한의 수익을 찾아다닙니다.

**질문** 박사님은 조정과정의 밝은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정과정은 자유시장경제의 정수<sup>精髓</sup>입니다.

**풀너**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경제가 통제 경제보다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통제경제 하에서는 정부의 결정은 명령으로 이어지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되며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계속 쏟아 붓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시장경제제도에서는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자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의 문제가 생기고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하지 않는 잠재실업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예를 모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시장의 정리방법입니다. 시장은 한국에서나 미국, 서유럽이나 러시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된 자본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더 이상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하거나 인도네시아 또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정과정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아마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치가들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 제도는 잔인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처벌이 아니라 자본주의제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체제가 움직여 나가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이며 자본 뿐 아니라 모든 생산요소들이 유동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제가 교육을 받았던 곳입니다. 글래스고시 외곽의 클라이드만은 애

덤 스미스가 래스길 대학에서 강의하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퀸 엘리자베스 호를 비롯한 모든 거대한 배들이 이곳 글래스고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영원히 영락해 버렸습니다. 일본, 한국, 노르웨이의 조선소의 시대가 도래 하자 클라이드만에는 더 이상 조선소의 일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30마일 떨어진 에든버러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을 때를 기억해보면, 한창 때인 30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들에게는 10, 15마일 떨어진 곳에는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언제나 조선소 일만을 해왔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 그들은 통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해달라는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 이제는 노동유연성이 보다 많이 확보되었고 오늘날 매우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것은 잔인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제도가 움직여 나가는 엄격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느 곳에서나 적용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욱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질문** 박사님의 주장은 여섯 번째 질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사님은 자본과 노동의 조정과정을 이유로 해서 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매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풀너** 특히 오늘날에 와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키보드 앞에 앉아 몇 개의 키만 두드리면 자본을 홍콩에서 취리히로, 뉴욕으로 어디로나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서울이나 뉴욕의 민간투자은행가라면 왜 희소한 자본을 러시아에 투자하겠습니까? 러시아의 전체 체제는 불안정하고 어떤 법률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 ~ 30%의 세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 마피아와 와서 보호세 명목으로 총자본의 5%를 요구합니다. 말이 보호세이지 다른 말로 하면 강탈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포드자동차 회사라면 러시아에 조심성 있는 투자를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이 투자비용에 비해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보리스 옐친이라면, 포드 자동차회사의 조심성 있는 투자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원할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러시

아의 운송수단을 향상시키고, 전체 경제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포드자동차회사라면 저는 러시아에 가지 않고 한국에 와서 기아자동차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희소한 자본에 비추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입찰할 것입니다.

**질문** 자본의 이동속도를 감소시키기를 주장하는 토빈스 교수처럼 자본이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풀너** 아니오, 그것은 마치 1942년경, 비행기 엔진에 속도조절기를 장치하고자 했던 시도와 같습니다. 1950년에는 어떤 비행기 엔진도 시속 300마일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영국항공이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 보잉사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1954년, 제트엔진이 발명되었고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유럽대륙과 영국에 보편화되었습니다. 제트엔진은 보잉사에도 도입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상업 비행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콩코드와 같은 비행기가 모두 날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본의 이동을 멈출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본의 이동을 멈추려고 시도하고 좁은 상자 속에 가두어 놓거나 어떤 틀 속에 넣으려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비효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본을 옮기려 하는 사람들은 관료들 - 그들이 IMF든, 세계은행이든, 재무성이든,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려는 관료들 - 보다는 훨씬 더 명석합니다. 이 같은 일은 지금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규제하려는 일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미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어떤 규제를 가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람들은 명석하고 기술이나 인적자본의 진보에서 정부를 열 걸음이나 앞서 있습니다. 정부는 절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본의 이동도 역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투명성과 국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자본이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이제는 한국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한국방문은 몇 번째입니까? 저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박사님이 1973년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박사님은 한국 현대사의 변천과정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풀너** 74번 또는 75번째입니다. 모두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짧은 방문을 통해 더욱 흥미롭게 한국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들을 볼 수 없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IMF 지원 프로그램 이후의 한국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너**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해답은 아니지만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경제 개방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좋은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열쇠입니다. 재벌과 기업사회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의 해결은 경제적 문제보다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를 재건하고 다시 되살리기 위한 부담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나누는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문제는 말의 성찬이 있고 제안들은 있지만 실행은 느리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너무 느립니다.

제가 미국정부와 행정부에 참여하면서, 또 특히 영국을 관찰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많은 경우에서 이를 배웠고 이러한 상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치가로 처음 당선되게 되면 밀월기간이라고 불리는 과감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을 갖습니다. 사람들도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어차피 당선된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랜 기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간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한국 국민이 기대하는 한국의 정치지도력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김영삼 정부는 정치연합의 일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반대편 출신입니다. 이들이 서로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김종필씨와 연합했고 그에게 국무총리 지명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재벌과 노동조합, 정부는 함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의 파업이 그 예입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언제나 현대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회사는 40,000명의 종업원 중 수천 명을 감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00명을 감축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1,500명만을 줄이기로 타협했습니다, 다시 감축규모가 단지 6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70명이던가요? 예, 27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직원식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고 영자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건 정신나간 짓입니다. 그 공장의 자동차생산은 50% 감소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자동차 생산량 절반이 감소된 공장이 같은 수준의 노동력을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대자동차에 대해서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뉴욕이나 디트로이트, 시카고나 로스앤젤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가를 만나거나 워싱턴의 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사를 읽고선 '왜 내가 반드시 한국에 가서 1,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을 설립하겠는가? 만약 20년 뒤, 내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자 할 때 20%의 노동력을 옮길 수 있겠는가? 나는 말레이시아나 다른 곳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대자동차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다른 예는 한국통신입니다. 저는 미국신문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 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다른 신문에서 한국통신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올해 초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로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주주에게 분배할 것이다, 단지 정부소유주식만을 매각할 것이다, 몇 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매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개혁 계획이 충분히 빨리 가동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한국이 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경쟁력의 선두를 지키고, 하이테크와 세계기준을 지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지도자에 의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표가 됩니다. 한국이 세계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50%의 과잉인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공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거나,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글썄요, 5월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6월에 있을 것입니다. 6월이 오고 다 지나갔습니다. 글썄요, 아마 9월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에 있는 사람들, 학계 인사, 정치인들조차도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미국에 가더라도 매일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국민정신을 불러 일으켜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장시간 동안 좋은 이야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Asia's Financial Crisis and Reform

---

An interview with Dr. Edwin Feulner by Dr. Byeong-Ho Gong

Transcript in English

**Gong** What grade would you give the economic reform efforts?

**Feulner** I predictably think and unfortunately only about a C+ for effort. It's obviously a work in progress. The problem is the situation varies from each country of course. But political pressures, internal structural complications that need reform and some bad decisions, in some places, leave me to give it only a c+, overall. Not from lack of will or desire, but from cases at least, not tackling critical problems from time to time . We can get into specifics a little later on.

**Gong** What do you think is the common failure to tackle the economic crisis?

**Feulner** Well, the first common problem that none of the Asian countries are really addressing is the rule of law. The rule of law is central and none of the countries really addresses this yet in an adequate fashion, from time to time. I speak here of and this gets to the point you make about crony capitalism. Under the rule of law there is transparency and laws apply the same to everybody. If you have transparency and laws applying the same to everybody, whatever the laws are they have to apply the same to everybody, then you have the rule of law and you have the structure on which you can begin the economic rebuilding.

**Gong** In Korea, I really worry about the big powers of politicians on the market. What kinds of lessons can we have from America to reduce political power?

**Feulner** The critical question there it seems to me is that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should be separated. That economic power in the hands of ordinary people, entrepreneurs, businessmen, capitalists should be separated from political power in the hands of either elected politicians or in the hands of appointed bureaucrats. If those powers are put together your concentration of power is excessive. You have less likelihood that there is going to be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to rise up or for the economy to really succeed in the long run.

**Gong** Let me get to crony capitalism, speak frankly, what do you think of crony capitalism ? Probably you have some opinion about that?

**Feulner** Well, I have some cronies who are capitalists, but .. that's just a joke. Crony capitalist means that individuals are making economic decisions not based on the wisest economic factors, but based on friendship, favoritism or bribery or regionalism or religion or something other than what makes sense economically. If it doesn't make the most sense economically, it means that it will not be the most efficient. It means that both the investor and the whol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economy will not get the most out of it that's possible. So

crony capitalism is a bastardization, a change of real capitalism. It's a perversion. It's a perversion of what capitalism should be. It gives capitalism a bad name, because capitalism means that there are efficient markets where people make the decisions that are predictable based on a certain set of principles and laws and that are in their maximum economic interest.

If you don't have that, it's because politicians or bureaucrats are pushing you in a different way or in some countries of Asia down south you have religion, set aside, for different groups or you have discrimination against different ethnic people and you know what countries I'm talking about. That means that the system is not as efficient as it should be. And in countries where capital is short you have to make capital us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So that's why I don't like crony capitalism. It's a perversion of capitalism. It means making economic decisions based not on rational economic input, but based on some artificial inputs that are different from that.

**Gong** In my opinion, if Asian nations want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they should achieve radical training from the crony capitalism to contracts, but there are so many kinds of barriers, for them to achieve that kind of radical change. What do you think of the future of Asian nations in terms of a pattern of capitalism?

**Feulner** My first answer, you recall, said that we have to do is encourage our friends in Asia to advocate and implement the rule of law. If they implement the rule of law, you then, and the rule of law implies transparency, it implies equal treatment of everybody under the law so that a government bureaucrat can't make somebody a favorite. That everybody will be treated equally, so that there are no discrimination, really. If you have that, then you have gone a very long distance towards implementing real capitalism and the real market system.

And the problem is the market system has a bad name because it sounds like people climbing over people, and taking unfair advantage of them, because that's what some radical authors make it sound like. But you and I know that is not what real capitalism or what a real free market system is. A real free market system is a system where there is a willing exchange between two parties; a buyer and a seller. And that could be for something huge like a company deciding it's going to go into a whole new line of business or it could be for something small like going down to the local store and buying the daily newspaper. And you willing give up 300 won or whatever it is. And they willing give you it, as you know it's a free exchange. And that's what the market system is all about. But when you have the external artificial barriers, when you have somebody saying



you must do this, because we say this is the way the economy should grow or this is the sector that you must invest your limited capital in or we say if you invest your limited capital in this, we will make sure no foreign capital comes in so you will have an unfair advantage. That's not the rule of law. So that, I think this is the first step that must be taken across Asia and until my friends through Asia come to grips with that. And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set off, but they all come back to that same basis. And you ask about Japan, Japan has the same problem.

**Gong** In addition to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Heritage Foundation, arguing against the IMF strategy supported by taxpayers in America. Several weeks ago you gave an article to the foreign mass media to emphasize the misuse of IMF Funds ?

**Feulner** I'm not only against it because it's supported by taxpayers in America. I believe that the IMF is not only not good for taxpayers in America, it is not good for the citizens of Korea, of Indonesia, of Thailand, of any other country, of Russia, of any other country that's being affected by it. It's not good for several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at it eliminates the moral hazard. It takes away from investors, the decision that we will put our investment here even though it's extra risky, because then it becomes a sovereign debt that the country will eventually repay. This isn't fair, because what ends up happening is that the taxpayer and the little guy in Korea, in Indonesia, in Thailand, or wherever ends up having to bear that burden so that the big bank in Japan, in Frankfurt, in New York or wherever ends up not having to absorb the risk that they should have, for the reward that they received. That's the first problem.

The second problem is, that the IMF has basically what we call a cookie cutter approach, which means..... Let me ask you, one thing, cookie cutter? The cookie cutter approach means that they have a program in their computer, they say to the computer take out Thailand, insert Korea, and we'll do the same thing there, or take out Korea, insert Russia, we'll do the same thing there. That's a cookie cutter. Bam, bam, bam, bam. Same all the way through and that doesn't work either, because Russia is a very different situation from Korea, from Thailand, from Indonesia. And in each of those systems, the approach that has to be taken to solving those economic problems while it rests on certain basic principles, as I already said, like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and transparency and making sure people are treated equally, it also every much, means that you can't just come along and impose a whole set of similar conditions on each one of those cases.

Reading the newspaper over the last week while I've been gone, Russia says they didn't get enough money. They want 20 billion more, then the next day you read that Russia is not going to devalue, the next day they devalue, the day after 5 billion of the IMF money that went in the week before was lost, because they tried to prop up the ruble. This is insane. Who's in charge? And this is not just money that belongs to the IMF.

**Gong** Yet, it's not just money. The ethical part. In the real terms, without any package of IMF, probably Russia won't have a serious problem.?

**Feulner** Russia already has a very serious problem. And until Russia, through the Duma, through a reinvigorated president and through a prime minister who has the full support of the president. Until all that comes together, Russia's not going to solve its problems. No matter how much money the U.S. treasury, the IMF, the World Bank or anybody else, or the European bank, no matter how much money they pour in, they're not going to solve the problem. (So what is the final destination of Russia?) If I could predict where Russia is going to be someday, I'd be richer than George Soros. I don't know, I don't know where Russia will be someday. All I know is for Russia to solve its problems it has to go back to basics. And that means exactly the points I've been stressing in terms of pushing for the rule of law, getting rid of arbitrariness. And the rule of law in Russia, unfortunately at this moment, obviously, also needs very very strongly, that they have to do something about organized crime. Which is in effect, well it's a threat to the whole society. If you have a legal system that is being undermined by an organization that has virtually as much power as the government you have a state of anarchy and a society can't exist like that.

There, either the people will rise up and throw them out, and start over again, or else the mafia, the organized crime, will finally come in and take full charge, in which case external capital will dry up and they'll say well sorry guys you're on your own. Go take care of it yourself. I sincerely hope that won't happen. In Russia, is a place I've visited a number of times. It's a very important country obviously, straddling 2 continents. It's important both in Europe. It's important here in Asia, I mean, it's very important to you. It's a nearby neighbor. And it's a trading partner. They have to come to grips with that. And that means there has to be not just, the rule of law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in terms of economic transactions, but there also has to be a criminal code that says you can't extort money from people. That has not only be the code written down, but it also has to be enforced by the legitimate police authority. Because, as you rightly point out, I should call myself a liberal as a traditional liberal or in the American sense a

conservative. One of the very legitimat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has got to be maintaining internal order.

And if you are a private citizen, whether you are a small farmer, a peasant farmer in Russia or whether, you're, as happened not to many months ago, an American businessman who owns a hotel in the center of Moscow. And you can't be certain of your own personal safety. This American businessman, I don't know if you remember the story, he was shot and killed in the lobby of his hotel by the mafia, because he wouldn't give in to some of the threats that they were making against him. You know that can't be permitted to happen, in a civilized society. And if it happens, you know, it happens in our country, I'm sure it happens in your country, but when it happens, you have to know that the police are going to go after the person who did that. Because what they did was illegal and that when they are caught they will receive swift and sure punishment. That's the only way that a civilization can go and as I said if it's going to grow and prosper. And as I say a legitimate role of government has to be the internal police protection.

Russia has a very long way to go. I mean they don't have the basics, like a code of business (Standard commercial code), how a business should operate. The banking system is very, very primitive. All of these things have to happen. None of these things will happen until they get past this. Until they put the basic structure into place. And inside the Duma, you have the largest single party, the former communists, you know the old communists, who now have some other name, but basically, they still are the communists in Russia. And you have people who are from kind of center to right are in the minority and so for them to the even try to put in place these very basic structures is a very very long uphill fight. I worry about Russia. I intend to be an optimist, but Russia I worry about.

**Gong** Well, you have so many information about Russia and there are a few intellectual people to understand the realism of the problem.

**Feulner** Where? In Russia. Very few, very few yeah. Our man who runs our Moscow office is a Russian. He has a weekly radio show that goes over all of Russia. That carries over all of Russia. He tries to educate the Russian people. The younger generation is a great hope. From my last visit to Moscow and St. Petersburg, the younger generation seems to understand, certainly much better than the older generation. But they don't, it's not completely clear that their moving, well certainly they're not moving as fast as I'd like them to. But they're not moving necessarily in the right direction.

And I say that I think in a country like Korea knows which direction to go. And it

almost always moves in the right direction. Sometimes it moves very slowly. Sometimes it kind of stops, but usually it doesn't go backwards. Russia goes ahead a little bit but seems to go back. And now we think we have to go back and start this last study all over again. That's very depressing.

**Gong** I understand. The next question is Japan such an important country for Asia and especially for Korea. What do you think about Japan's problems, the future of Japan? I mean, I really worry about the devaluation of the yen.

**Feulner** The yen.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yen was 100 to the dollar. Today it's over 140, and 142,143 wherever it is. This means a lot of things, obviously. First of all, it means more competition with exports from other countries of Asia, both from you and from Southeast Asia. Where Japan suddenly is competitive in industries where they were not competitive a couple of years ago. And that comes at the very time that Korea, Indonesia, Malaysia, Thailand have all got their own internal economic problems.

It also means, not directly, but going back a step earlier, that because Japan has been unwilling to really face up to both the property bubble and then the financial institution reforms that need to be made. That the whole Japanese economy which has been depended on by the other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is not able to perform, kind of, the leadership function that it has both in terms of capital provision and in terms of being a good customer. Whether it has to do with the number of Japanese tourists in Honolulu or it has to do with Japanese purchases of products from th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It's not able to do it, so the whole thing is out of kilter.

The basic concern that I've had for many years with Japan is that the Japanese problem is so deep and serious and they are unwilling, they have been unwilling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to really fundamentally deal with these questions. Yet, the property bubble goes up, prices of property go up, people borrow more money. Property gets so inflated in price and as you know it goes through the cycle. Japanese people are very frugal people. They save a great deal of money. The central, the banking system basically takes advantage of them. It gives them, in effect, no return. No interest return for their savings account. So, they have no.

The average Japanese person, from talking to my Japanese friends, has no personal discretion(personal choice) in terms of where they can make the highest return for their own capital. As an American, I can open a newspaper any morning and if I have a small amount of money, even just a couple thousand dollars, I can say I don't like Fidelity Magellan Fund. I'd rather be in brandywine or something. I can

sell and one and buy the other. In Japan, this is not really known to them(this kind of approach). And, so what do they do? They put their money into the bank, they get 1% or half of 1% interest. The banks then go loan the money to the favored people who've got these properties that are at inflated values.

Somewhere along the line, as the bubble bursts, and the whole economy falls apart. That's where we are with Japan. And the problem is Japan doesn't want to face up and say.. Somewhere ,now, they are starting to. For this we should be grateful, I guess.

They're starting to say some of the banks are going to go bankrupt. They're going to have to merge, security companies are going to have to sell off some of their assets. The Japanese people are going to have to get used to the idea that they are not necessarily going to be employed for life. That in a high tech environment there has to be movement between companies, between industries. There has to be mobility of labor; not only mobility of capital. And these are all kind of new concepts to the Japanese. They also have to , I think, realize, I don't want to overgeneralize when I say the Japanese.(To many of the Japanese I should say) is represented by their political leadership. I also have to say by the politicians. You know that's why it's hard to get the politicians to say "hey the money belongs to the people, it doesn't belong to the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get the economy back on track we should cut taxes. Give the money back to the people, let the people do with it what they want instead of we'll build some more roads to nowhere or we'll do more public works and the rest of these other government decisions..." Where again where you have the government making decisions like that, chances are that the government is not doing it as well as the individual citizen.

So, Japan, Russia needs the rule of law, and those kinds of fundamental reforms there.. Japan needs a fundamental rethinking in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political structure. In terms of, this probably needs to be a bottom up change, the Japanese people have to say to their politicians, you have to look at this whole thing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You can not keep doing things the way you've been doing them, because it doesn't work. Ten years ago,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dozens of books out talking about how the Japanese economic model would be the one that everybody in the world should follow. If anyone said that today, they'd be laughed out of the meeting. You can't say something like that. I mean the Japanese are...

**Gong** Several weeks ago, in a CATO press release, a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Ezra Vogel, a specialist on Japan, was criticized. Basically, I agree with what you



say. Without any fundamental change in the character of Japan, it can't achieve great success. But if the Japanese future is dark, the Asian countries will have great difficulty?

**Feulner** Well, the world economy is so interlinked and is so, to use an old Korean phrase, is so globalized, yeah, to use some politician's phrase whoever he was. The world economy adjusts and the adjustment is made in a million different ways everyday by individuals, by different institutions so that if Japan is not able to invest. That the world economy adjusts. Because capitalism is movable and fluid it can take up the slack, if you will, where there are attractive opportunities.

So I go back to it. And Japan, basically, is going to have to work out it's own set of problems, just as Korea and the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work out theirs. But there are going to be those opportunities there for capitalists from other countries. An article in the newspaper just the other day about groups of businessmen from Taiwan looking around for differen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different countries. In fact, I think there has been a delegation up here. So, capital can move. Capital looks for its highest return.

**Gong** You emphasize the bright side of adjustment. Adjustment is the essence of the free market.

**Feulner** That's right. Absolutely. And that's why the market system is so preferable to central control(to the command economy of the government),because a government makes a decision and then it commands, it takes from tax payers, from others, it takes more resources to justify that decision and keeps pouring it in and pouring it in. Whereas the market system says, "hey wait, if I'm not getting an effective return on my capital there, I'm going to move it someplace where I can get one". This does cause adjustment problems. It causes the kinds of things that our friends in Korea are not accustomed to, in terms of potential unemployment.

And therefore, what, and I'm not trying to make everybody copy the American example. What I'm just describing is like a physical law of nature. The way a market clears. It's going to clear the same way whether it's in Korea, whether i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ther it's in Western Europe or in Russia. This company will say, "this is not the highest invested use of our capital, therefore we have some capital, we're not going to keep pouring it in to making cars in Ulsan, by Hyundai or something. Instead we are going to do other things with the capital". Whether it is paying down debt, whether it is putting it into another division or whether it is opening a factory in Indonesia or the United States or

wherever it is. But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else which then means that there will be adjustment. Which means that there will probably be some people who will probably not be able to work there. But that means that we have to devise a system and inform politicians that this is no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but the capitalist system. That what this is, is, really, the inevitable law of how the economic system works and that's why there has to be mobility of all these factors of production; not just of capital.

And here I was educated in Scotland. You know of course, that for 130 or 140 years, along the banks of the Clyde, outside of Glasgow where Adam Smith taught at the University of Glasgow. These were the great ship building yards of the world. I mean, the Queen Elizabeth, and all of the great ships for 150 years came down there. Glasgow. Glasgow. They all came down right, forever. There came a time when Japanese ship yards, Korean ship yards, Norwegian ship yards, there were no more ship building jobs along the Clyde. And I remember as a graduate student studying in Edinburgh, the other side that's 30 miles away, reading about men who were in their prime, 30-35 years old. There were job opportunities 10 or 15 miles away, but because they had always worked in the ship yards, their fathers had always worked in the shipyards and their grandfather had, they would not move. And they wouldn't commute. So, they were on the dole. They were trying to form political pressure to adjust their situation. Well, eventually of course, Britain went through some very painful times, and now there is more mobility of labor, in Britain, which is why today it is a very very competitive country.

But they had to go through those painful processes too. And again this is not cruel capitalism from the United States that's being exported around the world, this is just, it's an iron law of how economic systems work. And they work that way wherever you are. If you don't take those kinds of adjustments, eventually it just becomes more painful than ever.

**Gong** Your argument is very closely related to number 6. You have a very bright future of capitalism because of adjustments, in capital and labor.

**Feulner** And especially in these days as you well know. Where somebody sitting at a keyboard can move capital from Hong Kong to Zurich or to New York or any place in between with just a few key strokes. And capital, this goes back to my earlier discussion about the IMF, if you were a private investment banker wherever you sat. Whether you sat in Seoul or New York, why in God's name would you invest scarce capital in Russia, when the whole system is totally unstable, there's no predictability in terms of how you are going to be treated

under the law.

You come along and try to start a business or something. Here's the ground rules on which you agree with the local government to open the factory and somebody comes along and says by the way you owe another 20% or 30% tax here. Then the mafia comes along and says we want 5% of your capital in order to protect you. You know protection, in quotes. In other words, extortion. This doesn't make any sense. If your name is Ford Motor Company or something, I suppose you might make a modest investment, because you want to be in the Russian market and you think it's going to be worth that kind of cost. But if I were Boris Yeltsin, I wouldn't want just a modest investment from Ford Motor Company. I'd want a huge investment, from Ford Motor Company, because it would employ Russians, it would give Russians better transportation, it would help our whole economy and all the rest. But if I am Ford Motor Company, I'm not going to go over there, I'll come over here and try to buy Kia, because it's a more attractive thing to do. It's my scarce capital. Provided the Korean government lets me make a serious bid. That is considered seriously.

**Gong** There are several scholars who argue that to reduce the moving speed of capital some of them want to have a kind of bluff system such as Tobins. Do you agree with that kind of argument?

**Feulner** No, that's like trying to put a governor on an airplane engine in 1942 or something, because, you know uh, or 1950, to say no airplane engine can go faster than 300 miles an hour, because if it does it gives Boeing an unfair advantage over British Aerospace or somebody else. You know it just doesn't work that way. Four years later you had the jet engine, invented, well commercially made available and popularized on the continent and England. From there it went to Boeing. And commercial airplanes today. If it weren'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you'd have concords and things like that flying all over.

So, say things in terms of capital movement. I don't believe you can stop it. If you try to stop it, if you try to force it into narrow boxes or into certain structures, A, it will not be as efficient as it would be otherwise been and B, the people who move money are much more clever than the bureaucrats, whether they are at the IMF or the World Bank or whether they are at a national treasury than the bureaucrats are who try to regulate the movement of money. It's the same exact thing that we are facing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government trying to regulate Microsoft. Whatever regulations that the government can put on Microsoft today, the people at Microsoft are so smart and their moving so fast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 terms of human capital, in the progress of human capital, that

they're 10 jumps ahead of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can never catch up. And the government can't catch up in terms of capital movement either. It just won't work. So, looking around for some kind of fix like that, the government is going to work. What has to happen is, governments have to ensure that there is the appropriate transparency, that people are treated equally. And then you get the best and most efficient movement.

**Gong** Well, right now, let me go to the Korean problem. How many times have you visited Korea? You know I read some scholars. You first came here in 1973. There have been so many people who have been shocked. You can watch the shift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Feulner** 74 or 75 times. Snapshots. And it's very interesting. I've probably. It's interesting to have a more interesting look at Korea that way, in terms of snapshots, then maybe it is in living here, because you don't see the changes when you live here, because they haven't come as gradually.

**Gong**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ange in Korea after the IMF rescue program? A,B,C,D...?

**Feulner** Uh, the ..and have talked about moves in the right direction. It's not the final answer, but it's a good step in terms of deregulation, in terms of opening the economy, in terms of encouraging the right kind of transparency. Those are the keys. As well, not only transparency on the chaebols(재벌) and the business community, also in terms of, the need, the political need, this is more of a political question than an economic question. The political need for all segments of society to share the burden of rebuilding the economy and getting it back in shape. And that, the problem is, as I see it that the rhetoric is there, the proposals are there, but the implementation is going to slowly. You mean the action? Yeah, the action. The action is not happening fast enough. The action is not enough. It's happening too slowly. Much too slowly.

And one of the things that I've learned, both from my involvement with the American government and the American administration and observing other ones, especially in England. I've studied it on a number of different occasions and I know that situation fairly well. Is that, when you first come into office as a politician, you have, as a politician, you have what we call a honeymoon period. Where you can make bold and broad change and the people expect it. And the politicians will not be as reluctant to accept it as they will be later on, when it's kind of business as usual. "And he's been there for a long time and so what." And this was especially true, of course, when it went from YS to DJ. I mean, this

is a ver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what the political, what the Korean people, expected of their Korean political leadership. YS was part of the ruling coalition. DJ kind of came in from the opposition. It was presumably not going to be more of the same. So, we had that. He had basically the coalition with JP. And the proposed nominee for Prime Minister. Good plans, good programs, going to the national assembly. Getting the chaebols and the trade unions and the government all together and saying this is what we've got to do for the good of the country. And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happened? I don't know. The Hyundai thing for example is a strike. I sit back in Washington. I read the newspaper day after day after day. It goes on and on. And everytime I read a story that has any news in it about Hyundai, what happens is, they went from a workforce 40,000, where the company said we want to cut some thousands. Well, okay we'll only cut 2500, well then they compromised where there will only be 1500. Well, maybe it will only be 600. As I understand it today, it's only some 270? Yeah, 270, yeah, yeah. 270, and most of them work in the cafeteria? That's what they said in the English newspaper. Most of them work in the cafeteria.

This is crazy. I mean, in this factory the production of automobiles is down by 50%. I mean you can't have the same level of labor force producing one half as many cars as they were producing last year. The system won't work that way. And it's not only bad for Hyundai. What it's bad for, it's bad for an American businessman sitting in his corporate headquarters in New York or Detroit or Chicago or Los Angeles and he goes to a meeting in New York City with President Kim De Jung and he hears about the great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in Korea or he goes to the US Chamber of Commerce in Washington, great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in Korea. And he reads this and he says, "Why should I go to Korea and open a factory there with 1000 workers, if 20 years from now I want to switch my priorities and move 20% of the workforce and I've got to go through this? I'll build in Malaysia or I'll go someplace else." So, that's the kind of thing. It isn't just the Hyundai case. It's all the other ones. All the ones that we don't know about. People are looking at Korea and saying you've got to deal with these problems. And when you say that you've got an agreement, you've got to meet that agreement and you've got to get out of there.

Same thing, other examples, in terms of, Korean telecom. I've been reading in the newspapers, the American newspapers, the FTE, the Wall Street Journal, other newspapers that Korea Telecom is going to be privatized. I've been reading thi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every time, well there's some other reason why we are not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spin this off or we're only going to sell the governments share, very gradually over a few years. You take case after



case after case like that and the signal that this is sending is that the economic reform package, is not moving, not only not moving quickly enough, it's not being considered seriously by the leadership here, in terms of keeping Korea where it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competitiveness in the region and in the world and at the forefront of high tech, of being world standard. I mean if you are world standard, you can't afford to have automobiles that are 50% overmanned. I mean that doesn't work. If you're world standard you can't say that we are going to privatize something, then have it go on and on, month after month and nothing ever happens. Or that we have a package of financial reforms. We'll introduce them in May. Well, maybe not in May. Maybe it'll be in June. Well, June comes and goes. Well, maybe it'll be September. This kind of thing. And I say this more in frustration... Obviously, I don't like it.. I just...

**Gong** Thank you.

## 에드윈 풀너와의 인터뷰 (비매품)

1997년 12월 29일 1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0일 1판 2쇄 발행

저자 공병호

발행자 최승노

발행처 자유기업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전화 02-3774-5000 · 팩스 0502-797-5058



\* 이 자료는 1997년 12월 29일 자유기업센터 발간물의 PDF 버전입니다.